

암 조기 발견시, 마취 후 고주파로 종양 태워 치료

건강 바로 알기 고주파열치료술(RFA)

김진웅

조선대병원 영상의학과 교수

고주파열치료술(Radiofrequency ablation, RFA)이란 이미 30년 이상 시술된 안전하고 효과적인 치료법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치료법으로, 암을 조기에 발견한 경우 마취 이후 고주파로 종양을 태워 치료하는 암치법이다. 주로 3cm이하의 조기간암, 간전이암, 신장암에 시행되고 있으며 갑상선·폐암 등에도 쓰이고 있다.

과거에는 1개의 고주파열치료 전극을 이용해 종양의 중심을 관통하는 고식적 고주파열치료술이 주로 시행됐지만 최근에는 조선대병원을 포함한 서울대병원, 서울삼성병원 등에서는 3-4개의 전극을 이용해 'No-Touch' 기법의 최신 고주파열치료술이 시행하고 있다.

이 기법은 종양을 관통하지 않고 종양 주위에 전극을 삽입해 종양세포가 주위로 퍼지는 것을 막고 넓은 범위를 빠른 시간에 소작해 재발률과 완치율에서 더욱 좋은 효과를 보이고 있다.

◇고주파열치료술 시술방법=시술방법은 고주파

화학색전술-고주파열치료술 병합요법, 합병증 적어 빠른 퇴원 가능
조선대병원, 간암·신장암 고주파열치료술 호남 최다...2000례 이상
서울대병원·삼성서울병원과 '간암 치료 의료기기유효성 평가' 연구

열치료술을 하기 전 통증을 줄이기 위해 정맥마취를 진행한다.

이후 초음파를 보면서 바늘을 삽입할 자리를 정한 후 소독과 국소 마취를 한다. 마취 후 초음파를 보면서 전극이 부착된 바늘을 미리 마취한 자리를 통해 삽입한 후 고주파를 발생시키고, 종양을 태워 제거한다.

시술 소요시간은 종양의 크기, 개수 및 위치, 환자의 상태에 따라 달라진다. 일반적으로 2cm 이하이고 시술하기 편한 위치에 있는 종양은 준비시간을 포함해 30분 정도 걸린다. 종양의 크기가 4cm인 단일 종양은 약 1시간 정도다. 3cm 크기의 종양이 3개 있다면 1시간 이상 소요된다.

마취는 국소마취와 정맥마취법을 사용하는데 마취 통증의학과 전문의에 의한 정맥마취 하에서 시행돼 시술 중 및 시술 후 통증이 현저히 감소된다. 현재까지 조선대병원을 포함한 일부 대학병원에서만 마취 통증의학과 전문의에 의한 정맥마취가 가능하다.

◇화학색전술(TACE)과 고주파열치료술의 병합요법=3-5cm 크기의 간암은 간동맥 화학색전술

(TACE)과 고주파열치료술의 병합요법을 시행한다. 간암, 간전이암, 신장암에 대해 2000 건 이상의 고주파열치료술을 시행한 경험을 갖고 있는 국내 권위자인 조선대병원 영상의학과 김진웅 교수 연구팀이 지난 10년 간동맥 화학색전술과 고주파열치료술과의 병합요법 치료 성적을 분석한 결과, 수술과 비슷한 치료를 보이면서 합병증은 더 적어 빠른 퇴원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년간 이에 대한 여러 편의 논문들을 유명 국제 학술지에 보고했고, 3-5cm 크기의 간암에 대해 현재 국제 표준치료법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다.

김진웅 교수는 "조기간암, 간전이암, 신장암 경우 수술적 절제가 최선의 방법이지만 지난 20년간



김진웅 교수



조선대병원 김진웅 영상의학과 교수가 초기 암 환자를 상대로 고주파열치료술을 진행하고 있다.

고주파열치료술이 비슷한 치료 성적도 보이면서도 낮은 합병증과 빠른 퇴원이 가능하다는 장점 덕에 점점 널리 사용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한편, 김진웅 교수는 서울대병원 주관 '간암의 국소 재발 감소를 위한 다전극 고주파 병합 출력 의료기기의 임상 유효성 평가' 연구에 참여한 전국 3명의 교수들 중 한 명으로, 고주파열치료술 분야에서 기술력과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다.

또 김진웅 교수는 대한영상의학회(ITA) 학술대회 우수논문상 및 최우수전시상, 대한영상의학회 학술대회 대상, 북미방사선의학회 학술대회(RSNA) 대상을 수상하는 등 주요 학회에서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으며, 인터벤션 영상의학분야의 최고 국제 학술지인 'JVIR'에 다수의 논문을 게재해 호평을 받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채희중 기자 chae@kwangju.co.kr



밝은안과21병원,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그린노블클럽 가입

밝은안과21병원(대표원장 김덕배)은 최근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이 운영하는 그린노블클럽 광주17호 회원에 가입해 헌액식을 진행했다. <사진>

이날 행사에는 밝은안과21병원 대표원장과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이흥렬 홍보대사,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김현미 광주지역본부장 및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그린노블클럽은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을 통해 어린이의 꿈과 미래를 위해 1억 원 이상 기부하는 고액 후원자의 모임이다. 밝은안과21병원은 전국에서 350번째, 광주에서 17번째로 그린노블클럽에 가입해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며 기부 문화 실천에 기여하고 있다.

/채희중 기자 chae@kwangju.co.kr

조선대병원 주창일교수, 신경외과학회 척추분야 대표 논문 선정

조선대병원 신경외과 주창일 교수가 최근 인천 송도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제62차 대한신경외과학회 추계 국제 학술대회' Plenary Session(참석자 전원이 참석하는 주제강연)에서 척추분야 대표 논문으로 선정되어 영어로 구두발표했다.

이번 Plenary Session은 대한신경외과 학술위원회에서 뇌혈관, 정위, 뇌 종양, 척추 4개 분야에 대하여 엄격히 심사를 하고 가장 학술적 가

치가 높은 연재를 선발하여 발표를 진행했다.

주창일 교수는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공 및 외측함요부 협착증에 대한 내시경 수술 접근 방법(추간공경유 접근법과 후궁경유접근법)과 관련된 해부학적 관련 인자'라는 논문을 발표해 조선대병원 척추 최소 침습 수술의 우수성과 학문적인 업적을 한국을 넘어 국제적으로도 널리 알리는 기회가 됐다.

한편, 주창일 교수는 현재 조선대병원 신경외

과장과 척추센터 최소 침습클리닉 실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또 대한신경외과 검사 및 학술위원, 대한척추신경외과학회 재무이사, 대한신경통증학회 회원 관리 이사 등으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채희중 기자 chae@kwangju.co.kr



주창일 교수

코로나19 이후 '성조숙증' 급증

지난해 건강보험 청구 2019년比 병원급 46%·의원급 101% 증가

국내에서 코로나19 발생 이후 성조숙증 진단 사례도 급증하고 있어 적절한 치료가 이뤄지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의료기관 진료과목별 성조숙증 청구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성조숙증 청구 건수는 64만 8528건으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보다

46.4% 증가했다. 의원급 의료기관의 성조숙증 청구 건수는 지난해 18만9508건으로 2019년 대비 101.3% 늘었다.

진료 과목별로 보면 지난해 병원급에서 성조숙증 청구 건수가 가장 많은 과목은 소아청소년과(63만37574건)로, 병원급 전체 청구의 98.3%를 차지했다.

영상의학과는 청구량이 2021년 175건으로 2019년(14건)보다 12.5배나 증가했다.

의원급에서도 지난해 소아청소년과 청구가 13만2289건(69.%)으로 가장 많았고, 마취통증의학과 청구가 3433건으로 2019년보다 3.1배 늘었다.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성조숙증 치료 주사제로 건강보험을 청구한 건수는 지난해 9만6866개로, 2019년보다 약 2.6배(155.2%) 증가했다.

신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소아 비만이 증가하면서 성조숙증 진료·진단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며 "다양한 성조숙증 사례에 맞춰 진단·치료 전문성이 높아져야 하는 만큼, 현장에서 적절하게 치료가 제공되고 있는지, 무분별하게 이뤄지지 않는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건강한 생활을 위한
스마트 에어가전이 한 곳에!

DK 디케이 주식회사
www.e-dk.co.kr

벽걸이공기청정기 (36평)
DAP-2299****

mini air(DAP-0403****)
공기청정기 + 블루투스 스피커

0420 공기청정기 (13평)
DAP-0420ANWG

S9 공기청정기 (16평)
DAP-2216NAWH

소비자만족센터(구입 및 A/S)
1544-1154